



새해는 좋은 재테크 습관 만들자

콜금리 5개월 연속 동결

카드만 긁지 말고 현금결제 하라

주머니 사정따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소비 결정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지출한다는 습관 중요

경우, 저축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자기 돈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므로 저축 후 남은 돈으로 생활하게 된다.

반면 월급을 받고 나서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경우 미래의 소비에 대한 효용가치보다 현재의 소비에 대한 효용가치를 따지게 되어 결국 지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조금 힘들더라도 과감히 저축부터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급여가 나올 때 처음부터 저축분이 공제되도록 만들거나, 저축이나 펀드로 자동이체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강제 저축율을 높이고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TNV 어드바이저 FP팀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월 콜금리 운용목표를 연 5.00%인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해 7월과 8월 두 달 연속 콜금리를 인상했던 금통위는 9월부터 다섯 달 연속 콜금리를 동결했다.

특히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에서 향후 통화정책 기조에 관한 시사점을 담은 문장을 이달에도 포함시키지 않아 콜금리가 다음달에도 동결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는 데다 2월 새로 출범하는 정부측에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콜금리를 현 수준에서 계속 묶어 둘 수 있을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분위기다.

이에 대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 방향과 한은과는 상충하지 않는다"며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부동산 가격을 정책 목표로 삼는다면, 기계적으로 통화정책에 연결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주주 오너 집안 미성년자

평균 32억 주식 보유

1,770상장사 3,867명 조사

상장기업 오너 집안의 미성년자들이 1인당 평균 32억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세계 전문 사이트인 재벌닷컴이 1천770개 상장사의 대주주와 일가족 3천867명이 보유한 지분의 가치를 8월 중가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대주주 집안의 미성년자(1990년 1월 이후 출생자)들이 보유한 주식평가액은 평균 32억원이었으며 평가액 상위 10위에 오른 이들의 경우 평가액이 모두 100억원을 넘었다.

이 가운데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의 아들 동영(15)씨가 5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허용수 GS홀딩스 사무의 아들 석훈(8)씨가 400억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사장의 장녀 민정(18)씨가 256억원, 구본준 LG상사 부회장의 딸 연제(19)씨가 235억원, 정몽진 KCC 그룹 회장의 아들 명선(15)씨가 21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의 보유지분 평가총액은 92조9천529억원으로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1천16조7천396억원)의 8.7%를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 보유액 24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주식평가액 전체 1위는 현대중공업 최대주주인 정몽준 국회의원으로 3조3천866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도 2조3천97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개인투자자 10명 중 7명

"지난해 재미 좀 봤다"

개인투자자 10명 가운데 7명이 지난해 주식 또는 펀드투자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증권업협회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15일~12월 7일 펀드를 포함한 증권계좌를 보유한 만 25세 이상 개인투자자 1천5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7%가 지난해 수익을 올렸다고 응답했다고 10일 밝혔다.

기관투자자 1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는 96.4%가 수익을 봤다고 밝혔다. 11% 이상 수익률을 올린 투자자는 개인이 43.0%, 기관이 91.0%로, 2006년 조사 때의 각 25%, 29.8%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개인투자자들의 금융자산 운용수단을 살펴보면 주식 및 펀드 등 투자비중이 51.7%로 예금·적립금 43.7%를 앞섰다. 월평균 투자금액은 10만~50만원 이면이 58.6%로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인수위 "1가구 1주택 양도세 인하 黨과 조율 안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0일 한나라당의 1가구1주택 양도세 조기 인하 방침에 대해 "아직 당과 완전히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양도세 인하와 관련 "당과 협의라인을 통해 좀더 조율을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양도세 인하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을 오히려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향후 1년간 시장동향을 지켜본 후 내년에 보완할 방침이었다.

기업인 공학 귀빈실 자율 이용자 14일 선정 작업

○공학 귀빈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인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이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가 최근 공학 귀빈실을 기업인 1천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14일 건교부는 전국 경제인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 단체와 1차 모임을 갖고 해당자 선정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인 1천명에는 10대그룹 총수를 포함한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와 수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LPG 경차 허용·연탄쿠폰 지급 차상위계층 확대

○액화석유가스(LPG) 경차 허용되고 연탄쿠폰 지급대상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지난 6일 전체 업무보고에 이어 9일 인수위에 고유가 대책 등 주요 정책과제의 세부 내용을 추가로 보고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고유가에 따라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기 위해 LPG 경차 허용을 최종 결정하고 연탄쿠폰 지급대상을 현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으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수위 "기업 친화적"이란 말 '친 재벌'과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자주 쓰는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친화적)에 대해 '친 재벌'이란 비판이 나오자 대통령직인수위가 친화를 나섰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것이 '프로(프로) 비즈니스'(친 기업적)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다"며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기업 친화적'이지 '친 기업적'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동관 대변인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프로 비즈니스'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10일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점을 찾은 고객들이 길이 1m20cm, 무게 32kg짜리 대형 다금바리를 보고 놀라고 있다. 이 제주산 다금바리는 최고급 횡감으로 유명하며, 4인분에 12만원을 호가한다.

(연합뉴스)

대기업 신입 채용 올해 2만8천명

올해 주요 대기업의 채용규모가 2만8천여명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9일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296개사를 대상으로 대졸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7.3%가 '올해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채용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14.9%였고, '미정'인 기업도 37.8%에 달했다.

채용계획을 확정된 기업의 채용규모는 지난해보다 1.2% 다소 증가한 2만8천59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채용계획이 미정인 기업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그 수가 3만명을 넘을 것으로 커리어 측은 내다봤다.

업종별로 채용규모는 전기·전자 4천9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4천454명), 석유·화학·가스(3천544명),

조선·중공업(2천596명), 제조 및 기타(2천496명), 건설(2천292명), 정보통신(2천5명), 자동차(1천903명), 유통·무역(1천326명)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운송(7.0%)과 유통·무역(6.4%), 석유·화학·가스(5.4%), 전기·전자 등의 업종에서 채용규모가 늘어났다. 반면 기계·철강(-7.2%), 건설(-4.3%), 식음료(-2.0%), 자동차(-1.7%) 등은 채용이 줄어들었다.

기업들의 채용시기(복수응답)는 9월(20.9%)과 10월(13.2%)에 주로 몰렸다. 상반기에 뽑겠다는 기업은 29.6%였고, 채용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거나 수시 채용한다는 기업도 26.4%에 달했다.

지난해 채용규모를 줄였던 삼성과 LG는 아직 올해 채용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LG의 경우 올해 소폭 증가할 것

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아시아는 지난해에 비해 18%가량 늘어난 2천600명을 뽑을 계획이다. 채용은 4~5월, 9~10월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화도 지난해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1천500명의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두산도 5월과 9월에 85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9월부터 서류전형을 시작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200명의 인력을 채용한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작년에 비해 30% 이상 늘어난 500~600명의 신규인력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뽑는다.

현대중공업은 3월과 9월에 모두 500여명 가량을 모집할 계획이다. 또 우리은행은 4월과 9월에 300명 정도를, 기업은행은 3월과 9월에 450명을 각각 뽑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고소득자 '7차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탈루혐의 큰 199명 전문직 대상

국세청이 고소득 의사·변호사·유형업주 등 자영업자에 대한 7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0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전문직 사업자, 현금 수입업종, 고가 소비재 관련업체 등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대표적인 고소득 자영업자인 전문직, 최종 소비자 상대 현금 수입업종 등이 주로 포함됐다.

업종 유형별 인원은 ▲현금거래, 비보험 수입이 많거나 탈루 혐의가 큰 성형외과·치과·안과·피부과 및 성공보수 등

을 신고누락한 변호사·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 48명 ▲고급·대형 유흥업소, 결혼관련 업종, 음식점, 입시학원, 가맹점업체 등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현금 수입업종 54명이다.

또 ▲무자료거래로 매출을 누락하는 골프 등 고가 스포츠용품 업체, 신고소득이 미미한 고급가구·의류·안경·화장품 등 고가소비재 관련업체 39명 ▲주택·상가 분양업체, 유흥업소, 지방국세청이 자체 선정업종 등 지방청의 특성을 감안해 조사가 필요한 업체 58명이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6 columns: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 격 및 경 령,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Lists various job openings with details like '서울에스티에스', '포토완주', '㈜지엠서비스' etc.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남평·일미 등 28개 품종 쌀 비축용 매입

농림부는 올해 남평·추청·일미 등 28개 품종의 쌀만 공공비축미로 사들인다고 밝혔다.

선정된 28개 품종은 동진1호·남평·추청·일미·주남·오대·고시히카리·고품·대안·동안·삼광·삼미·새추청·수라·신동진·오대1호·오래·온누리·운광·일품·중화·태봉·광안·호평·호품·화성·화영·히도메보레 등이다.

농림부는 163개 시·군이 신청한 471개 품종 가운데 신청률과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해 28개 품종을 최종 선정했다.

가장 많은 시·군이 신청한 품종은 동진1호(14.8%)였고, 이어 남평(11.3%), 추청(10.2%), 일미(7.4%), 주남(6.4%) 등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정부는 소비자가 인정하는 좋은 질의 품종을 집중 육성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지난 2004년부터 시·도별로 공공비축 미국 매입대상 품종을 제한하고 있다.

(연합뉴스)